

280개 마을 오롯이...드론으로 담은 내고향 장흥



사진집 '하늘에서 본 장흥'에 실린 장흥군 화진면 삭금리. 마동욱 사진작가가 드론을 이용해 촬영했다.

〈눈빛출판사 제공〉

장흥 출신 사진작가 마동욱씨 사진집 2권 펴내

옛 모습 사라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15~21일 서울 사진전

다문화가정 앨범 제작
모국 가족에게 선물도



“점점 사라져가는 고향 마을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줄어들고 빈집은 하나둘씩 늘어나 20년 후면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펴낸 장흥 풍경 사진집을 설명하는 마동욱(57) 사진작가 말씨에서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장흥 출신인 그는 시각예술로서 전문 출판사 ‘눈빛’ 제인으로 ‘하늘에서 본 장흥 : 꿈엔들 잊힐리야’ (448쪽·4만원), ‘고향의 사계 : 드론으로 본 내 고향 장흥’ (256쪽·6만원)을 최근 출간했다.

사진작가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알리기 위해 사진집을 출간하는 일은 흔하지만 마 작가가 책을 출간한 이유는 조금 다르다. 옛모습을 잃어가는 고향이 조금이라도 온전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을 때 기록으로 남겨야한다는 조바심이자 사명감이었다. 예전에 장흥사진집을 4권 펴내며 누구보다도 고향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마 작가다.

“지난해 4월 눈빛출판사 이규상 대표에게 장흥 마을 사진집을 내보면 어떻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고향사진을 올려놓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보셨나봐요. 흔쾌히 승낙했죠. 저도 평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안을 받고 바로 드론을 구입했다. 30년간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헬기, 경비행

기 또는 산 위에서 전체 마을 모습을 렌즈에 담고 싶었지만 항상 무언가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드론을 통한 항공촬영을 마음껏 하고 싶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바다에 빠지고 땅에 떨어뜨려 부서진 드론만 4개였다. 모두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제품이었다. 하지만 원하는 풍경은 얻을 수 있었다. 장흥지역 280개 마을을 샅샅이 찍었다. 원래 마을 전경사진집 한 권만 낼 계획이었지만 출판사 측에서 사람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활용해 ‘고향의 사계’를 한권 더 출판했다. 외국인들에게 장흥을 알리기 위해서다.

덕분에 마 작가 사진에서는 장흥지역 특성이 온전히 보인다. 전곡에서 보기 드문 강이 흐르고 있는 읍 중심지, 지역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천관산·제암산·억불산 등, 산, 강, 계곡이 어우러진 장흥을 엿볼 수 있다. 왜 음식이 풍부한지가 지리적인 요인을 통해 쉽게 이해된다.

“장흥을 한마디로 꼽으려면 문화 고장이요. 가사문화도 장흥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제 사진 작품 밑바탕엔 문학적 정서가 깔려 있어요. 한승원, 이승우 소설가, 이대훈, 김선옥 시인 등 문학가들과도 친하게 지내요. 그들과 같이 작업한 적도 있고요. 소설가 한강도 이젠 장흥 자랑거리로 들어가겠네요.”

최근에는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며 사람 얼굴을 찍기 어려운 시대다. 하

지만 마 작가는 고향이기에 사진찍기가 한결 수월했다. 카메라를 얼굴에 들이대도 사람들은 웃으며 피하지 않았다. 드론이 신기한 어른들은 오히려 자신을 찍어주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마 작가는 15~2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 갤러리에서 책 출간과 연계해 사진전을 연다. ‘고향의 사계’에 수록된 사진 중 60여점을 출품했다. 정이 넘치는 장흥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그는 젊었을 때 잠시 고향을 떠난 적이 있었다. 22살 때 서울구치소에서 약 4년간 교도관으로 있었고 1988년도에는 서울 중부소방서와 광주소방서(현 동부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일했다. 당시 소방총보관으로 근무하며 처음 사진기를 잡았다. 1989년 광주 근무시절 서울소방서 홍보담당으로 발령나려고 하자 그만뒀다. 고향에 있고 싶어서다.

“전 장흥을 사랑해요. 앞으로는 계속 고향을 비롯한 인근 지역을 드론으로 찍을 생각이예요. 또 구릿빛 주름살이 패인 70~80대 시골 노인 얼굴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은 다들 햇빛을 가리고 일해 점점 구릿빛 얼굴을 찾기 힘들거든요. 장흥군과 연계해 제작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해피앨범도 꾸준히 진행할 생각이예요. 1가정당 2권을 만들어 한권은 모국으로 보내는 일이지요. 그들도 우리 고향사람이거든요.”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강연회

오늘 광산구청 대회의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14일 오후 2시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주제는 ‘The Rising of the Roots(뿌리들의 일어섬) : 자신만의 창조성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이날 강연은 광산구가 주최하는 ‘제26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 시리즈 중 하나다.



이 작가는 강연에서 동양과 서양 고전에 동영상과 소리 등 미디어 요소를 입혀 현대적 메시지를 전하는 고유의 작품 세계를 일군 배경과 자신의 창의성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960-8885. /김미은기자 mekim@



‘레이나소피아 국립미술관 걸작...’ 강연

19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 문화예술 기획 행사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강연 주제는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걸작, 진실을 말하다’. 16세기 펠리페 2세가 세운 병원 자리에 1992년 문을 연 미술관은 프라도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던 20세기 작품들을 기반으로 일제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눈여겨 볼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독일이 스페인 작은 도시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 마을을 초토화한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림으로 이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 매년 수백 만명이 미술관을 찾는다.

그밖에 살바도르 달리의 ‘뒤로 앉은 여인’, ‘히틀러의 수수께끼’ 호안 미로의 ‘흡연자의 머리’, ‘앙귀비의 춤’ 흡연자의 머리’ ‘야자수가 있는 집’ 토레스의 ‘마놀라’, ‘독서’, 앙헬레스 산토스의 ‘모임’, ‘세상’ 등을 다룬다.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진행하며 그림 감상과 함께 인문학·문화적인 시대 배경도 살펴본다. 참가비 무료. 인문지행 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낭송회 ‘이런 향기로 안으리라’

15일 비움박물관...다도 강의·홀라춤 공연도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광주시 동구 대의동) 시낭송협회(회장 시인 오소후·사진)가 15일 오후 7시 박물관 1층에서 ‘이런 향기로 안으리라’를 주제로 제2회 시낭송회를 연다.

지난 5월18일 ‘너만 홀로 뜨거웠구나’를 주제로 펼쳐진 1회에 이어 2회에서는 세월의 향기를 이야기한다.

강우정 시지유낭송가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신해자 시인이 자작시 ‘매화’를 낭송하며 무대를 연다. 양경은, 김신환, 김점미, 신영희, 김미지, 문은희, 이상인, 오금자, 김진, 박방원 회원이 차례로 나선다.

‘유월’(오세영 시),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노라’(한석산), ‘바다’(서정주), ‘그리운 강’(도종환), ‘가시’(도종환) 등 여름밤을 낭만으로 물들게 할 시를 낭송한다.



또 최혜경 조선이공대학교수가 주제 ‘다도에 대하여’를 강의하고 박해림씨가 하모니카 연주, 박수현씨 등 광주여성홀라팀이 ‘알로하’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띄운다.

마지막에는 가곡 ‘장미’를 다함께 부른다. 예술감독은 김효순 시인이 맡았다.

시낭송회는 매달 한차례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관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개관한 비움박물관은 이영화 관장이 40년간 모은 민속품 수만점을 전시하고 있다. 문의 062-222-666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씻김굿의 현대적 재해석

양상블 시나위 ‘사랑이여’ 17·18일 문화전당 공연

전통음악의 씻김굿과 시나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각 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공연이기도 하다.

퓨전 국악그룹 ‘양상블 시나위’의 ‘사랑이여’가 오는 17~18일 오후 6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열린다. 문화전당과 광주문화재단 등이 공동지원한 작품이다.

‘양상블 시나위’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매체와의 시도를 시나위(죽음 연주 형태)로 풀어내는 젊은 연주자 그룹

이다. 밴드 ‘빅스’의 멤버로 활동한 음악가 정재일(기타), 2010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 작곡가 카임(전자음악),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감독이자 실력과 연주자 장재효(장구·퍼커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아쟁과 가야금, 양금, 판소리, 무가, 굿장단 등 시나위 합주와 함께 기타, 피아노, 전자 음악의 현대 음악적 요소까지 더해 풍성한 울림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음악(합창, 아카펠라, 판소리),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시(詩)를 조합



한 모던한 곳판으로 구성했다.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국무용수 백경우, 안무가 정영두가 무용수로 참여하며 광주시립합창단, 살레

시오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한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예매 ACC 홈페이지(www.acc.go.kr), 콜센터(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펜션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마지막 회차보유분

특별분양!!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ncore 호텔

RAMADA JEONJU @ncore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월수익 100만원